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14, 신성한 존재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신성한 현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역대기 기자의 성전 발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 제시의 큰 부분은 방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능에서 이미 강조했듯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거룩하신 분, 창조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사람들, 특히 그 삶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들, 즉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은 큰 예식 중 하나이며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특히 볼 수 있는 것은 법궤를 성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창조에 있어서의 신의 임재이지, 신이 어떤 식으로든 공간과 시간을 제한했다는 의미에서 신의 임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측면에서 신성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생명은 오직 거룩한 것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생명은 히브리인의 마음에서 거의 동의어입니다.

삶은 공통적인 것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요소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거룩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주는 능력, 이 거룩함,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방주를 세우는 데서 특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5장 2절부터 시작하여 6장 11절까지 다윗이 궤를 기랴야림에서 옮겨 놓았던 천막에서 궤를 옮기는 전체 의식이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즉 공유지 밖의 독점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둠에 의해 지정됩니다.

어둠은 시간에 의해 제한되는 신의 개념에서 우리를 제거하고, 어둠은 공간에 의해 제한되는 신의 개념에서 우리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의 차원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빛으로 상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는 하나님이 빛의 광채이시며, 그분은 생명의 광채이시며, 그것이 아름답다는 비유가 매우 역동적이고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생명과 선을 대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생명을 대표하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은 다른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둠의 관점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공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시간 가는 줄도 알 수 없는 어두운 감방에 갇혀 최악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그 길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시간에 대해 알아야 하고, 공간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사람을 그런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적인 박해인데, 이미 여러 번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거주에 관한 짧은 언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처로 두신 곳,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선택하신 곳, 거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거하시는 곳을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집은 하늘 하늘이라도 너희를 용납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그렇다면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썄요, 우리는 실제로 다른 고대 왕들이 거주를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거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영토에 신상을 세울 것이고, 그가 그 영토에 그것을 놓으면 그가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왕이 거기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아니야.

이것은 단지 왕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는 거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그곳에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많은 비문에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곳이 거기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이것이 나의 통치를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룹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물리적 임재가 있었다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들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야시다시피 법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에는 불이 있고, 압도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반복입니다. 다윗이 아루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곳이 성전 터가 되리라 한 것과 같은 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시가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꽤 축약되어 있고 열왕기에도 꽤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전 사본의 다양한 버전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의미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그것을 조금 채워줍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하늘에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캄캄한 데 거하기를 택하여 이르시되 내 집을 건축하라 너에게 합당한 집을
지어 너희가 새 길에 거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보시다시피, 이 책은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LXX에서도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자, 시편이 이것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시편 36편 8절과 9절이
있는데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삶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구절의 문맥을 보기 위해 되돌아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집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의 강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빛 안에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봅니다.

이는 성전이 상징하는 바와 우리 주변의 모든 창조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성전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에 우리가 부르는 상승 시편의 마지막 시편인 시편 134편에서 나온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 성소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창조를 상징하고, 지성소는 창조자를 상징한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기능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그의 통치를 대표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과 만민의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그의 공간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천국은 나의 보좌이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당신이 나를 위해 지을 집은 어디입니까? 내가 쉴 곳은 어디일까?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전이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 선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이에 많은 갈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신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집단에서 나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요점은 성전 주변의 이러한 의식이 그 자체에 암묵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즉 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예배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단지 의식일 뿐이에요.

그것은 단지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행동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종류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손가락에 결혼반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이 반지를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는 것에 대한 의식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취하고 있는 서약에 대한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종류의 반지든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데, 그냥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뿐입니다. 결혼반지를 손가락에 끼울 수는 있지만 예식의 일부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의식의 일부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소 흥분과 부주의로 인해 반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시 가져오기 위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아 오르간 반주를 들으며 신랑 이 반지를 들고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약 20~30분 정도 기다리게 되었다. 당신은 의식 없이는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 없이 결혼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반지 없이 결혼하라고 제안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 사원도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그것은 단지 공유지의 건물일 뿐입니다.

이 건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러한 의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집은 뭐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존재하게 하신 분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연대기 기자의 시대의 성전입니다. 연대기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구절이다. 그래서 연대기 기자는 시편 6장에서 솔로몬의 청원에 대해 그 자신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의 근원인 열왕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 132편 8~10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편 132편 8~10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기랴에서 귀를 가져와 지성소에 두어 그 안식처를 마련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된 이야기는 모두 이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8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궤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궤는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이사야 54장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구절과 결합합니다. 이사야 54장은 다윗과 다윗의 약속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 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의 약속은 연대기 작성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의 전체 개념은 이 다윗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실 확실한 공물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확실한 공물은 다윗이 행한 공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공물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4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대기 기자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봉헌식, 그리고 환상이 나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에서처럼 이것이 기브온에서 있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솔로몬은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일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불성실함과 이 사원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사라질 수 있었는지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것은 역대기 기자의 핵심 어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면 자, 우리는 아직 그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연대기 작성자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은 아마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겸손은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성전뿐 아니라 하늘에서 듣고 돌이켜 내 얼굴을 찾으리라. 치유됩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휘입니다.

연대기 편찬자가 이번 세션에서 우리가 보게 될 왕들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큰 질문은 그들이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것들은 모두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단어입니다. 불행하게도 결국 그들의 특징은 사울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불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는 당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강력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l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신성한 현존입니다.